

동아리 곳곳에 숨어든 'JMS'... 비공식 모임 파악 어려워

일반 동아리로 위장해 포섭도
종교 동아리가 아닌곳도 있어
총학생회·동아리연합 등 논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대학가에서도 발견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내에서 일반 동아리로 위장하는 등 자연스럽게 포섭을 시도하지만, 중앙 동아리가 아닐 경우 학교 측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워 대응책이 요구된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 곳곳에 숨어 있는 'JMS' 관련 동아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종교 동아리가 아닌 일반 동아리로 위장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학생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희대학교 신입생인 김모(19)씨



복기운이 완연한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동아리 박람회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시스

는 "JMS 관련 동아리 리스트를 보게 됐는데, 종교 동아리가 아니었던 곳도

있어서 무섭다"며 근심을 털어냈다. 경희대는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일명 'JMS 대학 동아리 리스트'에서 일전에 제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동아리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에게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경희대 관계자는 "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이라고 하는 학생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종교별로 동아리들이 있다"며 "사이버를 관리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활동 중인 동아리 리스트에 오르면서 움직임이 시작된 대학도 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20대)씨는 "학교 커뮤니티에 관련 동아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동아리 연합회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이버 동아리들도

정상적인 척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두 개쯤은 속여도 학생들이 잘 몰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려대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대 학생 담당 부서와 동아리연합회는 대응 마련책이나 피해 사례 조사를 논의 중이다.

문제는 중앙 동아리처럼 학교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아닐 경우 학교 측에서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댄스 동아리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숙명여자대학교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중앙 동아리나 학과 차원의 활동 모임을 검토한 결과 그쪽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별적으로 모여서 하는 모임까지는 현재로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내 'JMS' 관련 동아리가 과거에 퇴출됐다고 알려지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동아리가 과거에 있었다는 정황이 기록상 남아 있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상에는 해당 동아리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출됐다 등의 소문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중앙 동아리로 개설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 마스크' 캠퍼스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학교마다 동아리 박람회가 진행되는 등 동아리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들에게 'JMS' 동아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발해지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마냥 긍정적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마다 총학생회, 동아리연합 등이 모여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학기 초인 만큼 결정된 사안은 적은 편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과감한 혁신'... 지역 이끄는 글로벌대 육성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추진' 공청회
제2차 회의에서 확정, 4월 초 선정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하게 될 것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중수 글로벌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해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설명한 후 대학·지자체 관계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글로벌대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을 담았

다.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벌대학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해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도대학으로 육성해,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대학은 개방적인 대학 의사결정 체제 운영, 학사구조의 유연화 등 대학 내외부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과 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 체계, 그리고 투명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례 공청회를 통해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해 글로벌대학에 대한 대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며, 제2차 글로벌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초 선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김중수 글로벌대학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대학은 지역사회의 자랑거리이자 지역 주민에게 존경받는 대학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대학으로 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학 지원의 생태계 변화로 대학이 적극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글로벌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서울교육청, AI교육 우수사례 공유

인공지능 융합 교육 활성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인공지능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AI교육 사례 나눔집'과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례집'을 제작·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바르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초등학교용)',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을 개발해 보급한 바 있다. 이번 자료집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 교육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AI교육 사례 나눔집'은 서울시교육청 AI교육 선도교사단 소속 교사들이 교과 수업 속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실천한 다양한 사례들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을 운영하고 있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AI교육 사례 나눔집 표지 /서울시교육청

며, 2022학년도에는 249명의 교사가 선도교사단으로 활동했다.

AI교육 사례 나눔집에는 ▲(초등학교) AI식물도감 만들기, 인공지능과 스마트한 미래도시 만들기 ▲(중학교) 'A·B·C·D 프로젝트'를 적용한 교과 수업 혁신, AI를 활용한 소설 임팩트 프로젝트 ▲(고등학교) 인공지능과 교과로 풀어보는 문제, AI로 나의 진로 찾기 등 초·중·고 학교급별 인공지능 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오세훈, 세계 시장회의서 '서울형 헬스케어' 알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 우수 건강 정책을 소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도시파트너십은 암·당뇨·심혈관계 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과 상해 예방을 위해 구축된 세계 도시 네트워크다. 블룸버그 재단이 지원하며, 서울·런던·파리·도쿄 등 70여개 도시가 참여한다.

올해 최초로 개최된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에서 오 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병원 등 공공 의료시설 확충 ▲서울시의 금연정책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김현정 기자 hik1@

5년간 594억 투입... 여의도 '금융중심지'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서울시는 영등포구에서 제출한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진흥계획은 진흥지구를 중심으로 권장업종 활성화 방안과 권장업종 기업 및 시설 관리 방안,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이다.

이번 진흥계획에 따라 여의도는 디지털국제금융중심지로 거듭난다. 디지털 금융지원센터 설립, 핀테크기업 육성, 금융중심지 브랜딩 홍보 강화, 금융교육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어 친화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올해부터 2027

년까지 593억5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건축규제 완화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시는 영등포구와 함께 여의도 일대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달 28일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포4동 일대(46만4048㎡)를 '정보통신기술(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2007년 도입한 제도다.

/김현정 기자

상암 DMC 랜드마크 조성사업 착수

용지 매각 공급 공고 16일 시작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 공급 공고를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급하는 필지는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246) 2곳이며, 총 면적은 3만7262㎡이다. 두 필지를 공동 개발할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공급 가격은 8254억원이다. 시는 공동개발 신청자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시는 해당 부지에 서북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

화할 수 있는 첨단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센터는 랜드마크 빌딩으로 건립된다. 랜드마크 빌딩은 최고 높이 540m 이하에서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세계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